

추리소설 번역에서 결속구조 및 정보성 변화 양상과 그 효과

-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 영어 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

마승혜* · 김순영**

Seunghye Mah and Soonyoung Kim (2022), A Study on the Changes of Cohesion and Informativity in Mystery Novel Translation and the Resulting Effect: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Disaster Tourist* by Yun Ko-Eun. *Mystery is a genre of literature in which authors and readers play logical games. Since the readers make inferences based on textual information, the authors focus more on efficient information delivery. Efficient information transfer can be achieved by adjusting the cohesive links between linguistic elements in texts, which ultimately influences the informativity of the tex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formation of the cohesive structure and the subsequent change in informativity, which occur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 Disaster Tourist from Korean to English. With regard to this specific mystery novel, it is frequently observed that the informativity of certain words and phrases is downgraded in translation as a result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cohesive structure. When the informativity is downgraded, the reader's cognitive exertion is reduced and stronger impressions are made in the reader's mind. However, the informativity downgrade may diminish the reader's excitement at the tension and focus, ultimately eroding the joy of reading genre fic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Keywords: mystery novel, translation, cohesion, informativity, The Disaster Tourist

주제어: 추리소설, 번역, 결속구조, 정보성, 밤의 여행자들

*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제1저자

**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교신저자

1. 서론

추리소설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자본주의, 그리고 대중의 등장으로 발달한 독특한 서사 양식 및 구성을 가진 소설의 한 장르이고, 작품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 추리 과정은 독자에게 강한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발한다(윤미화 2007). 그리고 추리소설 저자는 효율적 내용 전달을 위해 고심하는데, 과잉 정보 전달로 긴장감이 약화되거나 과도한 생략으로 독자가 사건 실마리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박옥수 2015).

사건과 관련된 배경을 제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언어적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 관련 어휘 및 표현들의 결속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속구조는 보그랑데와 드레슬러(Baugrande and Dressler 1981)가 제시한 7가지 텍스트 구성 요소¹⁾ 중 하나로 텍스트 표층에 드러나는 어휘적·문법적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표층 결속망을 통해 특정 사항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촉진하기도 하고 추가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며 독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 텍스트 구성 요소는 상호 작용을 하며 텍스트를 구성해가기 때문에 결속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텍스트 구성 요소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결속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 중 하나는 텍스트의 정보성이다. 정보성은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독자에게 얼마나 새롭고 예측 가능한 것인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텍스트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면 독자는 지루함을 느낄 것이고, 정보가 너무 적게 제공되면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곽성희 2001).

추리소설 번역의 경우 독자가 사건에 대해 너무 어렵지 않게 추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호기심과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이를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작품의 결속구조를 변형하거나 활용하여 정보성을 조절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2021년 영국 추리작가협회(CWA)에서 주관하는 대거상(The CWA Dagger) 번역추리소설 부문을 수상한 『밤의 여행자들』(Source Text, ST)과 영어 번역본 *The Disaster Tourist*(Target Text, TT)를 대상으로 번역과정에서 결속구조

1) 보그랑데와 드레슬러(1981)가 제시하는 7가지 텍스트 구성요소는 ‘결속구조(cohesion)’, ‘결속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다.

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로 인해 번역본의 정보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추리소설 번역 시 논리성을 전달할 수 있는 결속구조 및 정보성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번역 분석에 적용하여 번역과정에서 결속구조와 정보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그 결과 독자는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되는지, 그 효과는 적절했는지 논의해보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추리소설 특징 및 번역 시 고려사항

비평가이자 추리소설 작가이기도 했던 키팅(Keating)은 추리소설을 “작가와 독자 사이에 벌어지는 논리적 게임”(윤미화 2007: 242)이라고 정의한다. 논리적인 사건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추리소설 장르의 특징이기 때문에 추리소설에서는 수사학적인 만연체나 미학적인 화려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추리소설 독자 또한 줄거리를 놓칠 정도로 복잡한 문체나 독창적인 플롯을 원하지는 않는다(ibid.: 245). 독자는 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추리하므로 작가는 문체보다는 효율적 정보 전달에 더 중점을 둔다. 추리소설에서 효율적 정보 전달이란 과잉 정보가 전달되어 텍스트 전개를 느슨하게 하거나, 배경 설명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독자가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박옥수 2015: 199). 즉, 원작과 독자의 거리가 너무 멀지도, 좁지도 않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되면 원작과 번역 독자와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번역 독자는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으로 원작과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중간에서 논리성과 정보성을 적절히 조절하여 번역 독자의 이해와 추론을 도와주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을 잃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추리소설 번역의 특수성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풀어쓰는 전략이 많이 채택되고, 이러한 명시화는 문학작품 번역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언급한다.²⁾ 그러나 장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추

2) 베누티(Venuti)는 블룸-쿨카(Blum-Kulka)가 ‘명시화(explicitation)’ 현상을 설명한 것에 대해 다음과

리소설 번역을 살펴보면 명시화 전략을 고수할 경우 긴장감이 약화되어 추리소설 특징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는 표층에 드러나는 언어 요소들의 결속구조를 조절하는 것이고, 결속구조 변형을 통해 정보성을 조절할 수 있다. 정보성은 텍스트 구성상 특정 항목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시되는 자료의 예측성 및 개연성의 정도에 따라 정보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 때문이다(보그랑데와 드레슬러 1981). 이러한 특정 항목 선택 및 배열은 곧 텍스트의 결속구조와 관련 있어서 결속구조와 정보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사례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은용(2014)은 일본어 소설의 우리말 번역을 분석하며, 번역과정에서 미시적 층위의 결속구조가 변하면 거시적 층위의 정보성 또한 변하는 것을 실질적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김혜영(2012)은 영화 『라폰젤』의 영한 대역본을 어순 변형과 정보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예를 들어, 원문에서는 기본 어순으로 표현되었는데 원문 언어 표현의 정보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번역문에서 어순을 변경하고 결속구조를 강화하기도 한다. 결속구조가 강화되면 개연성은 높아지고, 개연성이 높아지면 정보성은 낮아지게 된다(이은용 2014: 140). 구체적으로 반복 및 병행구문 사용으로 어휘 및 문장간 개연성이 높아지면 독자가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어순 도치 등 일반적이지 않은 통사구조를 사용하면 정보성이 높아지고 내용 이해가 어려워지지만 대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곽성희 2001: 77-78).³⁾ 이처럼 결속구조와 정보성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추리소설을 번역할 때는 결속구조와 정보성을 조절하여 번역 독자의 이해와 추론을 촉진하고, 번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지적 소모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추리소설 번역 수용을 용이하게 돕는다. 그러면 결속구조와 정보성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고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번역은 항상 명시화, 반복, 부가적 설명 및 담화 전략을 통해 결속구조를 강화하고 번역된 텍스트 요소들의 의미 관계를 강화한다(Translating always increases the semantic relations among the parts of translated text, establishing a greater cohesion through explicitness, repetition, redundancy, explanation and discursive strategies)”(Venuti 2021: 214).

3) 예를 들어, 시나 유머에서는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발화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곽성희 2001: 78).

2.2. 결속구조(cohesion)

텍스트에서 결속구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결속장치는 다양하다.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and Hasan 1976)은 문법적 결속장치와 어휘적 결속장치로 나누어 결속구조 형성 방식을 설명한다. 문법적 장치로는 ‘지시어(reference)’, ‘대체(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어 사용(conjunction)’이 있고, 어휘적 장치로는 ‘언어(collocation)사용’과 ‘환언(reiteration)’이 있다. 어휘적 장치인 ‘환언’은 ‘동일 단어 반복(repetition)’, ‘유의어(synonymy)’, ‘상하위어(hyponymy)’, ‘전체-부분어(meronymy)’처럼 어휘 간 관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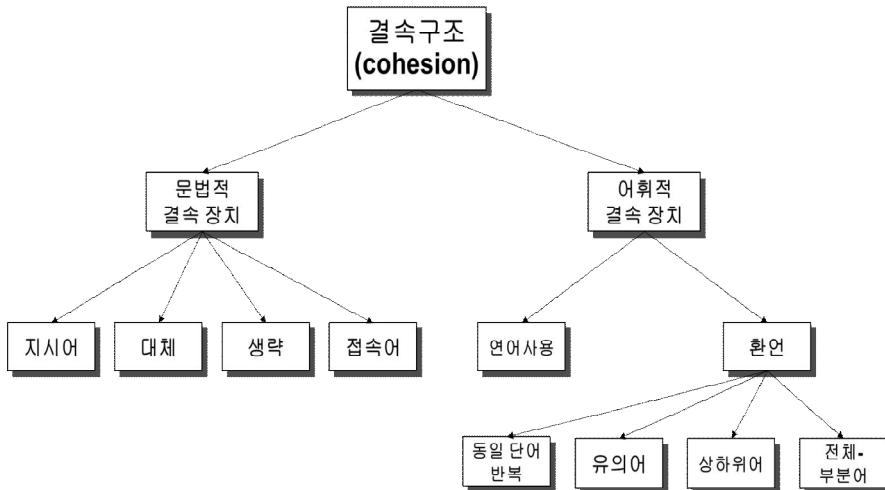


그림 1. 결속구조를 형성하는 결속장치

각각의 세부 결속장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본 연구의 초점인 결속 구조와 정보성의 상호관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텍스트에서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면 독자는 지시어가 선행어(또는 선행문)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복원하며 적극적으로 텍스트를 읽어야 하므로 독자에게는 인지적 소모가 늘어나고 정보성이 높아진다. 즉,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반면, 동일 단어를 반복하거나 유의어 등을 사용하여 병행 구문을 형성하면 문장 간 개연성이 높아지고, 개연성이 높아지면 인지적 소모가

줄어들고 정보성은 낮아진다. 즉, 독자가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결속장치 활용 방식은 언어별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우리말은 앞 문장의 명사를 대명사로 받지 않고 동일한 명사로 반복하는 어휘적 결속장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특성이 있는데(이익섭과 임홍빈 1983: 244), 영어는 선행어를 받을 때 동일 명사 반복 보다는 지시어를 사용하는 문법적 결속장치 혹은 동일 단어 반복을 제외한 환언 장치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양명희와 안경화 2003: 212). 우리말에서 동일 단어 반복을 통한 결속구조 형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요나는 금요일 오후 진해로 내려갔다. 요나가 여행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정글은 진해와 연관된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곧 갖게 될 터였다. ... 서울에서 진해로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보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더 길었다. (윤고은 2013: 10)

[사례 1]에서는 장소명인 ‘진해’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결속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동일 단어가 반복되다 보니 정보성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 그런데 ‘진해’를 ‘Jinhae’라고 동일 단어로 반복하여 번역하면 ‘진해’에 대한 배경지식⁴⁾이 없는 영어권 독자는 ‘진해’와 관련된 텍스트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영어는 동일 단어 반복과는 다른 방식으로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선행명사를 지시어로 받거나 [사례 2]와 같이 인물의 부분적 특징을 나타내는 전체-부분어 관계를 활용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사례 2]

Looking back just over a decade later, Hitler spoke of the fifteen months he spent in Munich before the war as “the happiest and by far the most contented” of his life. The fanatical German nationalist exulted in his arrival in a German city. (이희재 2009: 60)

[사례 2]에서는 히틀러의 국적 및 성향과 같은 부분적 특징을 구체화하여 ‘Hitler-the fanatical German nationalist’라는 결속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히틀러가 광신적 독일 민족주의자라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속구조 형

4) 예를 들어, 진해의 위치 및 서울에서 진해까지 대략적인 왕복 이동 소요 시간 등.

성 방식은 히틀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동일 명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 우리말 사용자, 특히 역사적 지식이 없는 어린이가 독자일 경우, ‘the fanatical German nationalist’가 히틀러를 지칭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번역할 때는 목표 언어의 결속구조 형성 특징도 고려해야 하지만, 목표 독자의 배경지식 수준 또한 염두에 두고 번역하며 정보성을 조절해야 한다.⁵⁾

2.3. 정보성

보그랑데와 드레슬러(1981: 139)는 제시된 정보가 수용자에게 새롭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정보성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보성을 1차 정보성(first-order informativity), 2차 정보성(second-order informativity), 3차 정보성(third-order informativity)으로 구분한다(143-144). 1차 정보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거나 예측하기 쉬워서 의미 파악 시 인지적 처리 부담이 적은 경우이다. 1차 정보성에 해당하는 정보는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지루하고 흥미가 떨어지며 주의를 끌지 않는다. 즉, 텍스트에서 1차 정보성이 유지되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2차 정보성에 해당하는 것은 새롭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가 적당히 있는 경우로, 의사소통할 때 기준이 되고 안정감(stability)을 느낄 수 있는 경우이다. 3차 정보성에 해당하는 것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인지적 처리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대신 흥미가 더해지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해와 파악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 긴장감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성을 높이거나(upgrading) 낮추는(downgrading) 과정이 필요하고(145), 이러한 과정을 “2차 정보성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surfing to the stability of second-order)”(Lee 2014: 195)이라고도 한다.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정에는 번역가의 텍스트 해석이 개입되어 번역 결과물의 정보성이 원작의 정보성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를 부탁해』 번역을

5) 동일한 텍스트를 읽더라도 독자마다 정보성 단계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는데, 목표 독자 개개인에게서 모두 동일한 효과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우므로 번역가는 목표 독자의 보편적 특성을 파악해내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김세정 2008: 66).

바탕으로 번역물의 정보성 변화에 대해 설명한 선행연구(Lee 2014) 사례를 보면, 원문의 ‘J시로 가는 기차로 갈아탔다’는 표현에서 ‘J시’가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3차 정보성을 지닌 표현이라고 한다. 이 문장을 그대로 ‘got on a train to J City’라고 번역하면 3차 정보성을 유지하여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번역가는 이를 구체화하여 ‘got on a train to Chongup’이라고 번역했고, ‘J시’가 ‘Chongup’을 지칭하는 것으로 명시화 되었으므로 원문의 3차 정보성은 번역에서 2차 정보성으로 낮아졌다고 한다(Lee 2014: 208-209). 그러나 한국 도시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영미권 독자에게는 ‘J City’나 ‘Chongup’이나 정보성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성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용자(receivers)’이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수용자인 번역독자가 기준이 되어 정보성을 조절해야 한다.

번역 시 정보성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텍스트 종류이다. 문학, 특히 시와 같은 장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사구조를 사용하여 정보성을 높이기도 하고, 의미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보그랑데와 드레슬러(1981)는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의 시⁶⁾에서 사용된 표현 ‘발이 없는 깨끗하고 깔끔한 신발(clean and neat shoes without feet)’을 언급하며,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3차 정보성에 해당하는 표현이 시에서는 허용되지만 과학적 텍스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49).

추리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영미권 독자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텍스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3차 정보성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지되면 이해와 추론이 어려워지고, 1차 정보성이 유지되면 지루하고 흥미를 잃기 때문에 정보성을 적절히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추리소설 번역 사례를 바탕으로 결속구조와 정보성이 어떻게 변형·조절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6) Their coats were brushed, their faces washed,
Their shoes were clean and neat -
 And this was odd, because, you know,
They hadn't any feet. (Carroll 1960: 234, 필자 강조)
 (그들의 코트는 정돈되어있고, 얼굴은 씻었으며,
 신발은 깨끗하고 깔끔했어요 -
 이상했죠.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들은 발이 없답니다)

3. 번역 사례 분석

3.1. 분석 대상

추리소설의 결속구조와 정보성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며 전달되는지 살펴 보기 위해 분석한 작품은 2013년 출간된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이다. 이 작품은 번역가 리지 불러(Lizzie Buehler)가 영어로 번역하였고, 영어 번역본 *The Disaster Tourist*는 2020년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2021년 영국 추리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거상 번역추리소설 부문⁷⁾을 수상했고,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대만과 소설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국 기반의 개발사와 전 세계 영상 콘텐츠 개발 계약도 체결했다.

이 책은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여 폐허가 된 지역을 관광하는 ‘재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 ‘정글’의 수석 프로그래머인 주인공 ‘고요나’가 회사의 재난 여행 상품 중 하나를 평가하기 위해 재난 여행에 참가했다가 겪게 되는 일을 보여준다. 직장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주인공은 사막의 싱크홀 ‘무이’로 재난 여행을 떠나고,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고립되며 엄청난 프로젝트에 휘말리게 된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인기가 없어진 ‘무이’의 상품성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숨조차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재난 여행’과 ‘자본주의’를 결합한 ‘에코 스릴러’이다. 특히 이 작품은 내용상 반전을 제시하는 추리소설의 특징을 보이면서 동시에 반전 제시 방법이 독특하다. 작가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신선한 비틀기’ 또는 ‘새로운 추리소설’이라고 설명한다(월간중앙 2021). ‘에코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의 추리소설이고 독특한 스토리 전개 방식을 선보이는 작품이므로 번역가는 번역과정에 결속구조를 활용한 논리성 및 정보성 조절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는 한국 지명, 문화, 언어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독자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3차 정보성에 해당할 수 있다. 3차 정보성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어권 독자가 작품을 읽으며 추리해가는 과정에 혼란을 가

7) “대거상은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1955년 제정한 추리문학상으로, 매년 픽션과 논픽션 대상 총 11개 부문의 상을 수여한다. 미국 추리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에드거상과 함께 영어권 양대 추리문학상으로 꼽힌다. 대거상 번역추리소설 부문은 영어로 번역된 외국 추리 문학 중 뛰어난 작품에 주는 상이다”(중앙일보 2021).

중하거나 추론 흐름을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 번역에서는 한국 문화와 연관된 것, 한국어의 특성 등이 환언 및 첨언과 같은 결속구조 변형을 통해 부연 설명되고, 그 결과 정보성이 낮아져 독자의 추론과 이해를 돕는다.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속구조가 변형되고 정보성이 낮아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다.

3.2. 결속구조 변형을 통한 정보성 격하 사례

우선, ST에서는 우리말 특성에 맞게 결속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면, TT에서는 영어 특성에 맞게 결속구조를 변형하면서 동시에 정보성을 낮추어 독자의 이해와 추리를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 TT에서는 어휘적 결속장치 중 ‘환언’을 통해 결속구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환언’중에서도 ‘전체-부분어’, ‘동어 반복’, ‘유의어’ 활용을 통해 결속구조를 강화하며 정보성을 낮추는 양상을 볼 수 있다.

3.2.1. 전체-부분어 관계 활용 정보성 격하

[사례 3]은 경남 진해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과 건물이 난파된 상황이 배경이다. 주인공 요나는 재난 발생 지역을 관광하는 재난 여행상품 판매 여행사 ‘정글’의 여행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진해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해 진해를 방문하고 돌아온다. 이 부분에서 ST에서는 동일 단어 반복을 통해 결속구조를 형성하는 우리말 특성에 맞게 장소명 ‘진해’를 동일하게 반복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동일 단어 반복 보다는 환언을 통한 결속구조 형성이 좀 더 빈번하게 활용되므로 TT에서는 ‘진해’라는 도시의 위치적, 상황적 특징으로 환언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부분적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영어권 독자에게 ‘진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진해’ 관련 정보성을 낮춰주는 효과를 준다.

[사례 3]

(ST) 요나는 금요일 오후 진해로 내려갔다. 요나가 여행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정글은 진해와 연관된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곧 갖게 될 터였다. ... 서울

8) 여기서 특정 부분이 정보성이 높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정보성이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관련 정보가 많고 적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한다.

에서 진해로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보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더 길었다. (p.10)

(TT) Yona went down to Jinhae on Friday evening. Jungle—the travel company where she worked as a programming coordinator—didn’t currently offer any travel packages to visit the post-tsunami rubble, but it would soon. … Yona’s return to Seoul took longer than the trek down south. (p.4)

ST에서는 ‘진해-진해-진해’라는 동어 반복 결속구조를 볼 수 있지만, TT에서는 ‘Jinhae-the post-tsunami rubble-south’라고 하여 ‘진해’의 부분적 속성을 드러내는 환언을 통한 결속구조를 형성하여 진해에 대한 정보성을 낮추고 있다. 영어권 독자에게는 ‘진해’라는 지역명이 생소할 것이고, 진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진해’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을 소요하지 않도록 정보성을 낮추어 영어권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텍스트에서 정보성을 낮추는 방법은 이전에 나타난 발화체에서 관련정보를 찾아 정보성을 낮추는 ‘후향적 격하(backward downgrading)’, 나중에 나타날 정보를 미리 고려하여 정보성을 낮추는 ‘전향적 격하(forward downgrading)’, 텍스트 범위 밖의 정보를 갖고 와서 정보성을 낮추는 ‘외향적 격하(outward downgrading)’가 있다(보그란데와 드레슬러 1981: 217).

[사례 3] TT에서 ‘Jinhae-the post-tsunami rubble’ 결속구조는 앞서 진해가 쓰나미로 폐허가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 상 이전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성을 격하한 ‘후향적 격하’ 사례이다. 반면, ‘Jinhae-south’ 결속구조는 진해가 한국에서 경남, 즉 남쪽에 있다는 텍스트 밖의 정보를 활용한 경우이므로 ‘외향적 격하’ 사례이다. 이렇듯 환언을 통해 정보성을 낮추면 독자가 불필요한 곳에 인지적 노력을 소모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사례 4]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례 4]

(ST) 쓰레기의 예상 경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 10년 후의 경로를 이미 예상해 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의 경로가 자신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기를 빌었다. 일상에서 위험 요소를 배제하듯, 감자의 싹을 도려내듯, 살 속의 탄환을 빼내듯, 사람들은 재난을 덜어 내고 멀리하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배제된 위험 요소를 굳이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생존 키트나 자가 발전기, 비상 천막 같은 것을 챙기면서, 재난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찾아다닌다. ... 정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여행사였다. (p.11)

(TT) Predictions about the trash's future path varied. ... Some people even estimated where the trash would be ten years from now. Most citizens just hoped that they wouldn't cross paths with the tsunami's remains. They wanted to shield themselves from disaster, to hide from risk. However, one segment of Korean society differed from the risk-averse majority. These voyagers carried survival kits, generators and tents as they searched out disaster zones worthy of exploration. ... Jungle was the travel company for such adventurers. (p.5)

[사례 4]는 쓰나미가 진해를 휩쓸고 난 후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가 바다 위에 표류하게 되었고, 그 쓰레기의 예상 경로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과 재난에 대한 사람들 반응에 있어서 차이점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ST에서는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그들-사람들’이라는 동어 반복을 통해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반면, TT에서는 ‘people - citizens - one segment of Korean society - the risk averse majority - these voyagers - such adventurers’라고 환언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처음에는 ‘people-citizens’라고 유의어를 활용하지만, 그 다음에는 ‘people’중에서도 재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the risk-averse majority)과 굳이 재난을 찾아가는 일부 사람(one segment of Korean society)을 구분하고, 이들을 ‘voyagers(여행가)’와 ‘adventurers(모험가)’라고 분류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TT에서는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환언하여 독자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재확인시켜줌으로써 정보성을 한층 낮춰주고 있다. 이 부분 번역에서 정보성 격하는 타인의 재난을 ‘구경’하고 ‘여행’하는 자본주의 세태를 풍자하는 작품 주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존 정보 및 주제 재확인을 통해 정보성을 낮추면 독자가 내용과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사례 5]도 마찬가지로 ST에서는 ‘회의-회의’라는 동어 반복을 통해 결속구조를 형성하지만, TT에서는 ‘meetings-social exertion’이라고 환언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하고, ‘회의’의 속성에 대해 다시 설명해준다.

[사례 5]

(ST) 회의가 끝나면 사람들은 모두 화장실이나 흡연실로 가서 참았던 욕구들을 배출하곤 했는데, 그날 요나는 회의 없이도 지쳐있었다. (p.18)

(TT) After meetings, employees would crowd into the bathroom or smoking area to relieve built-up tension, but today, even without such social exertion, Yona was too

exhausted to do anything but rush back to her desk. (p.12)

‘회의’에는 참석자를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적 속성이 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사람들은 회의 중 참았던 긴장감을 해소하러 간다. 그래서 TT에서는 ‘회의’의 이러한 부분적 속성을 활용하여 ‘회의’를 ‘social exertion(사회적 분투)’이라고 설명하는데, 앞서 언급한 ‘built-up tension(누적된 긴장)’을 활용한 정보성의 ‘후향적 격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회의’의 속성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례 3], [사례 4], [사례 5]의 경우 ST는 우리말 특성에 맞게 동어 반복을 통해 결속구조를 형성하고, TT는 영어 특성에 맞게 다른 단어로 환언하며 결속구조를 변형하여 정보성을 낮추면서 독자의 불필요한 인지적 소모는 줄이고, 독자에게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음 사례들은 ST에서는 우리말 특성에 맞게 결속구조를 형성하지만, TT는 무조건 영어의 결속구조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독자를 위한 명확한 설명 제공과 인지적 소모 방지를 위하여 결속구조를 변형한다.

3.2.2. 동어 반복 활용 정보성 격하

또 하나의 우리말 결속구조 특징 중 하나는 ‘단어 이상 차원에서 문법적 결속장치(grammatical cohesion above word level)’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Kirk 2004: 177).⁹⁾ 구체적으로, 앞서 설명한 것을 ‘그’ 또는 ‘그것’과 같은 지시어를 사용하여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어 이상 차원의 결속장치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독자는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되돌아가 확인하거나 아니면 정확히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지시어가 선행문을 대치한다는 것을 맥락을 통해 인지하고 그 의미를 복원하며 내용을 따라가는 과정에는 독자의 능동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시어와 같은 대용형 사용은 정보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이은용 2014: 146). 그래서 번역에서 ‘그’ 또는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면 독자의 인지적 노력 정도가 줄어들고 정보성은 낮아진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9) 단어 이상 차원의 문법적 결속장치란 “I look like a huge pink bird. Is that OK?”(Kirk 2004: 170, 필자 강조)에서 지시어 ‘that’이 앞 문장 ‘I look like a huge pink bird’를 가리키면서 단어 이상 차원의 결속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6]

(ST) “자네 입장에선 휴가지만, 회사 입장에선 출장으로 처리될테니 얌려 말고 자네가 상품의 존폐를 결정하는 거야. 자네의 의견을 참조해서 살리든 죽이든 할 테니까.”

“제가 기획한 것들도 그 대상인가요?”(p.31)

(TT) ‘It’ll be break for you, but Jungle sees it as a business trip, so don’t worry. I’ll use your repor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terminate the package.’

‘Are any of the trips I designed at risk of termination?’ (p.25)

[사례 6]에서는 주인공 요나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내자 상사가 한 달 동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는 장면이다. 한 달 동안 쉬는 것은 아니고, 존폐를 고민 중인 회사 재난 여행상품의 소비자가 되어 직접 경험해보며 그 상품을 유지할지 접을지 의견을 내라고 하는데, 요나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 상품을 ‘살리든 죽이든’ 결정하겠다고 한다. ST에서는 ‘살리든 죽이든’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음 문장에서 ‘그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지시어 ‘그’를 활용한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TT에서는 이 부분을 ‘terminate the package - termination’이라고 동어 반복을 통해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그’라는 단어 이상 차원의 결속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가 금방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단어를 반복해줌으로써 ‘그’의 정보성을 낮추어 독자의 ‘그’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지적 노력을 줄여주는 것이다.

[사례 7]

(ST) 욕심도 관심과 비례해서, 어떤 지명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지도를 눈으로 훑기 전에는 콩알만 하던 욕심도, 일단 관심을 갖고 알아 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클 커지는 법이다. (p.34)

(TT) Desire and interest go hand in hand. When your eyes first scan over a place name on a map, that desire is as small as a bean. But as your interest in a place grows, the bean sprouts into something much more substantial. (p.29)

[사례 7]의 경우 ST에서는 ‘콩알만 하던 욕심-관심을 갖고 알아 가면-그만큼 커지다’라고 하며 지시어 ‘그’를 사용해서 앞의 내용과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반면 TT에서는 ‘as small as a bean-as your interest grows-the bean sprouts into something’이라고 동어 반복을 활용해 연결고리를 만들며 ‘그만큼 커지다’의 의미를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결속구조를 강화한다.

다음 [사례 8]에서도 ST에서는 ‘첫 번째 것-마지막 것’이라고 하며 지시어를 사용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하지만, TT에서는 단어 반복을 통해 지시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사례 8]

(ST) 아이가 속성으로 다섯 장이나 휘갈긴 그림의 첫 장에는 리조트에서 먹은 브라질식 바비큐가, 마지막 장에는 구덩이에 널린 머리들이 그려져 있었다. 첫 번째 것은 이 여행의 취지와 도무지 맞지 않았고, 마지막 것은 불쾌했다. (p. 59)

(TT) The first of the five or so images she quickly scribbled down was of the Brazilian barbecue she'd eaten at the resort, and the last depicted heads, scattered about a crater. The meat didn't at all fit with the purpose of this trip, and the heads were just unpleasant. (p. 53)

재난 여행을 다니는 일행 중 다섯 살 아이를 데려온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는 아이가 여행 기억을 남기도록 그림을 그리게 시켰다. 엄마가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하자 아이는 속성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첫 장에는 리조트에서 먹은 바비큐를, 마지막 장에는 그들이 여행하는 사막 싱크홀에 머리만 잘린 채 묻혀있다는 어느 부족 사람들의 잘린 머리를 상상하여 그렸다. 재난 여행지인 그 사막에서는 과거 부족 간 싸움이 있었고 일명 머리 사냥이 일어나 상대방 부족의 머리만 잘라서 사막 구덩이에 모아두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ST에서는 ‘브라질식 바비큐-머리-첫 번째 것-마지막 것’으로 결속구조를 형성하는데, TT에서는 단어 반복을 통해 ‘the Brazilian barbecue-heads-the meat-the heads’라고 번역하여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후향적 정보성 격하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독자는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었는지 다시 돌아가 파악하지 않아도 되고 인지적 소모는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ST에서 지시어를 사용하여 앞에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TT에서는 그 지시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어 반복을 통해 설명하면서 정보성은 낮춰주고 결속성은 강화한다.

3.2.3. 유의어 활용 정보성 격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결속구조를 변형하여 정보성을 낮추는 또 하나의 유형은

유의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례 9]

(ST) 시간은 참을성 있게 흘러갔고, 요나는 휴가 전에 마무리해야 했던 업무들을 처리했다. 그중 하나는 두 번이나 통화했던 남자의 여행을 수수료 없이 취소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다섯 장의 문서를 만들어 올려 보내야 했지만 ... (p.35)

(TT) Time passed slowly, and Yona dealt with things she had to do before her trip started. One of her tasks was the cancellation for the man she'd spoken with twice. She'd changed her mind again and wasn't going to charge him for it. In order to withdraw his trip, she had to send in five whole pages of documents. (p.30)

요나가 일하는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예약했던 한 남자 고객이 사정이 생겨 예약 취소를 요구하자 요나는 ‘본인 사망 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회사 규정을 언급하며 취소해주지 않았다. 그 이후 요나도 갑자기 사직을 결심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만두기 전에 회사 재난 여행상품을 휴가 삼아 경험해보고, 그 상품을 유지할지 중단할지 의견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요나가 휴가 떠나기 전 업무 정리를 하면서 예약 취소를 요청했던 그 남자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장면이다. ST에서는 ‘남자의 여행을 수수료 없이 취소’하는 것을 다음 문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라고 받아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다시 한번 단어 이상 차원의 결속구조를 형성하는 우리 말 특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TT에서는 ‘그러기 위해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의 인지적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 유의어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밝힌다. TT에서는 ‘the cancellation for the man-in order to withdraw his trip’이라고 유의어를 활용한 결속구조 형성으로 변경하여 ‘그러기 위해서’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정보성을 낮춘다. 독자가 불필요한 곳에 인지적으로 소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음 [사례 10]도 마찬가지로 TT에서 유의어를 활용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효과는 [사례 9]와는 다르다.

[사례 10]

(ST) 벌써 어둑어둑한 무이는 이 도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말해 주지 않았다. 밤이 내려 까만 유흥가도 하나 보이지 않는 섬이었다. 그래서 리조트 입구가 더 밝게 느껴졌다. (p.44)

(TT) Mui was already dark. It wasn't easy to see what lay at the end of the road. Once

Mui had drifted into night, you couldn't see a single thing on the island, not even neon signs from a red light district. The total blackness made the entrance to their lodgings seem even brighter. (p.38)

요나가 도착한 재난 여행지는 베트남 근처의 섬 ‘무이’이고, 이곳은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고립된 지역이고, 이러한 특성은 후에 요나가 무이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ST에서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밤이 내려 까만, 유흥가도 하나 보이지 않는 섬-그래서’와 같이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반면 TT에서는 접속사 대신 ‘you couldn't see a single thing’의 의미를 다시 반복하여 ‘you couldn't see a single thing on the island-The total blackness’라고 유의어 반복을 통해 결속구조를 형성한다. 섬의 고립성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중요한 배경적 특성이 되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의미 반복을 통해 독자에게 이 섬이 얼마나 외딴곳인지 강조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다음 [사례 11]의 ST에서는 유리창이 깨져있는 사건에 대해 단어 이상 차원의 지시어 ‘그렇게’를 사용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하는데, TT에서는 유의어를 사용하며 이 상황에 대해 독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사례 11]

(ST) 요나가 머물렀던 방의 유리창 한쪽이 깨져 있었는데, 그게 원래 그랬는지 밤 사이에 그렇게 된건지, 아침 식사 시간에 그렇게 된 건지 시점이 모호했다. (p.67)

(TT) One side of the window in the room Yona had stayed in was broken, and it was unclear if had been shattered before they arrived or if it got that way during the night—or if it had been tampered with during breakfast. (p.62)

요나가 재난 여행지에서 하루 자고 일어나니 요나의 방 유리창 한쪽이 깨져있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무이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이에는 재난 여행지로서 상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일부러 일으키는 무리가 있었고, 재난 구성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 살인도 자행되고 있었다. [사례 11]에서 요나 방 유리창이 깨진 것도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유리창을 깬 것이었다. 다음 부분에 “작가가 유리창을 살펴보더니 누군가가 교묘하게 칼로 올려 낸 것 같다고 말했다”(윤고은 2013: 68)는 내용이 뒤따르는 것으로 볼 때 유리창이 깨진 것이 사고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ST의 ‘깨

지다. 그랬는지-그렇게-그렇게'로 형성된 결속구조가 번역되면서 TT에서는 'broken-shattered-that way-tampered with'라는 유사어 결속구조로 변형되어 유리창 깨진 사고에 대해 독자에게 좀 더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TT의 마지막 표현 'tampered with'는 '마음대로 조작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 일부러 유리창을 깨 것'이라는 다음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그렇게'에 대한 정보성을 낮추어 독자의 의미 파악을 돕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전향적 정보 격하 사례이고, 이를 통해 무언가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음을 독자에게 각인시킨다.

마지막으로 [사례 12]의 경우는 ST에서는 뚜렷한 결속구조가 관찰되지 않지만, TT에서는 유의어를 활용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하며 독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불필요한 인지적 소모를 방지하고 있다.

[사례 12]

(ST) 다음 날 아침, 동이 튼 직후 요나 일행은 짐을 꾸려야 했다. 그들을 하룻밤 품어 주었던 수상 가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O) 1963년의 그날 밤처럼 운다족 족장은 밤사이에 죽었고, 그 머리가 그들의 문 앞에 걸려 있었다.

(p. 66)

(TT) The next day, the Unda group had to pack their bags right after dawn. The house on stilts that had harboured them for the night looked like a wreck. A re-enactment was under way: everything had been made to resemble the famed night in 1963. A fake head that supposedly belonged to the leader of the massacred Unda tribe now hung in front of their window. (p.61)

과거 부족학살 사건이 있었을 때 학살된 것으로 알려진 운다족의 수상 가옥에서 하룻밤 자보는 체험을 한 요나 일행이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 수상 가옥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고 묘사하는 부분이다. 과거 학살 때처럼 운다족 족장은 밤사이에 죽고, 그 머리가 문 앞에 걸려있었다는 내용이 뒤따른다. ST 독자는 이 부분을 읽으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되고, 과거와 같은 학살이 또 일어난 것인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긴장하며 읽게 된다. 한참 지나서야 이 상황이 과거 학살을 재연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TT에서는 처음부터 이 상황이 진짜가 아닌 재연임을 밝힌다. ST에서 아무 설명 없는 부분(O)에 'An re-enactment was under way(재연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설명으로 상황묘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reenactment-fake'의 결속구조를 형성하여 다시 한번 독자에게 이 상황이 가짜임을 각인시킨다. 그 결과 TT 독자는 이 부분을 읽으며 상황 파악을 위한 인지적

소모를 하지 않게 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가 사건의 시작을 의심하며 갖게 되는 긴장감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4. 분석 결과 논의

『밤의 여행자들』이 *The Disaster Tourist*로 번역되면서 우리말 특성에 맞게 형성된 ST 결속구조가 변형되고 그로 인해 정보성이 낮아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속구조와 정보성 변형으로 인한 효과는 다양하다.

첫째, 번역과정에 TT 언어인 영어의 특성을 살린 결속구조로 변형하여 독자에게 좀 더 익숙한 통사구조를 제공하기도 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정보성을 낮추고 독자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결속구조 형성 시 우리말은 동일 단어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데, 영어는 동일 단어 반복 보다는 유의어 혹은 전체-부분어 관계를 활용한 용어를 사용하여 환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사례 3]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지명 ‘진해’를 여러 번 언급할 때 ST에서는 ‘진해’만 반복하지만 TT에서는 ‘Jinhae-the post-tsunami rubble-south’라는 결속구조를 형성하며 진해가 바로 쓰나미 피해를 본 지역이고, 이 지역은 남쪽 지방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문맥 의미 파악을 도와준다.

둘째, 독자가 불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거나 의미 파악을 위해 인지적으로 소모하는 것을 방지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추리소설 독자는 줄거리를 놓칠 정도로 복잡한 문체를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고맥락 언어에 해당하여 맥락 의존도가 높은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저맥락 언어에 해당하는 영어 사용자가 읽을 때 의미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거나 인지적 소모가 많아질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사례 6]이나 [사례 9]의 경우처럼 ST에서 단어 이상 차원의 지시어가 등장하면 이를 번역하면서 환원 장치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좀 더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TT

10) 이 작품의 번역가 리지 블러는 인터뷰에서 한국어-영어 간 특징을 반영하여 번역 시 좀 더 명시적으로 정보를 드러냈다고 언급한다.

“제 생각에는 한국어와 영어의 또 다른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한국 독자는 영어 독자보다 모호함을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 영어권 독자가 만족하도록 하려면 영어 문장에 더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지만, 한국어 작가는 모호한 경우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I think that relates to another linguistic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where Korean readers are much more comfortable with ambiguity than English readers. ... English sentences tend to require more information to be satisfying to readers, whereas in Korean, writers can be vaguer and get away with it)”(Blackman 2022).

정보성을 낮추어 불필요한 인지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단어 이상 차원의 지시어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언급하면 인지적 소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 및 배경에 대해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사례 10]이나 [사례 11]처럼 ST에서 지시어(‘그렇게’)나 접속사(‘그래서’)로 지칭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며 다시 한번 반복하면 배경 상황이나 사건이 독자에게 좀 더 강하게 각인된다. 이러한 반복은 추리소설에서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혹은 독자가 나중에 회상할 때 도움을 주는 주요 장치이다(Seago 2014b: 217). 그러므로 환언을 통한 반복은 독자의 사건 전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추리소설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평온한 상태(equilibrium)’가 ‘파괴(disruption)’ 및 ‘회복(restitution)’을 오가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작가는 사건의 실마리를 부분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잠정적으로 감추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자를 밝히고, 문제 해결과 질서 회복에 이른다(Seago 2014a: 5). 이렇듯 불연속적이면서도 파편화된 사건 제시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피터 브룩스(Peter Brooks) 그리고 츠베탕 토도로브(Tzvetan Todorov)가 말하는 추리소설의 탁월한 특성이다(Seago 2014a: 6). 그런데 ST에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파괴’ 및 ‘끊김’을 TT에서 ‘복원’하고 ‘연결’해주면 추리소설의 탁월함을 구성하는 긴장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사례 12] 경우처럼 ST에서는 갑자기 예상치 않은 사건 발생으로 독자의 평온한 상태가 파괴되고 혼란이 초래되는데, TT에서는 이 사건이 꾸며진 것이라고 미리 설명하여 평온한 상태의 파괴를 막으면 추리소설로서의 탁월함은 반감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리소설을 번역할 때 다양한 결속구조를 활용하여 정보성을 낮추면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독자의 인지적 소모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번역과정에서 정보성이 계속 낮아지기만 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건 등장, 내용의 끊김을 통해 유발되는 추리소설 긴장감이 반감될 수 있으므로 번역가는 정보성 격상, 유지, 격하를 잘 조절하며 번역해야 한다.

5. 결론

본고에서는 2021년 대거상 번역추리소설 부문을 수상한 작품 『밤의 여행자들』

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추리소설 번역에서의 결속구조 변형과 그에 따른 정보성 변화, 그 결과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이 작품의 경우 번역과정에 원문 내용이 생략되거나 축약되어 정보성이 격상되는 경우보다는 원문 내용을 환연·반복하여 정보성이 격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성이 낮아지면 독자의 인지적 소모는 줄어들고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 독자에게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번역의 친절한 설명으로 인해 독자가 긴장하고 집중하며 추리하는 흥미진진함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일례로, *The Disaster Tourist*에 대한 전문 비평가의 비평 중 번역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불러가 선택한 문장 구조는 배경 상황에서 드라마적 요소를 줄여 둔탁한 효과를 주고, 미묘하게 그 상황을 위기보다는 불편함 정도로 제시한다(Buehler's chosen sentence structure produces a dulling effect that leeches drama from the situation, deceptively presenting it as an inconvenience rather than the crisis it becomes)”(Meyer 2020)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¹¹⁾

번역 시 결속구조 강화, 명시화, 정보성 격하 등은 문학작품 번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문학의 장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장르별 번역 현상 및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문학계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 세부 장르별 작품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므로¹²⁾ 장르별 번역 전략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추리소설 번역에서 결속구조 및 정보성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향후 연구를 확대하여 양적 분석을 추가한다면 세부 장르별 번역 전략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장르별 번역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 본고를 통해 장르 특성을 살리는 번역 전략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1) 전문 비평가가 아닌 일반 독자 서평을 살펴봐도 이 책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이야기(unique and original story)’라는 호평도 많지만, 스토리 전개 방식 관련하여 “딱히 잘못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 지루함(nothing especially wrong with it but a bit boring)”, “기대한 만큼 흥미진진하지는 않음(It was not as exciting as I'd hoped)”, 또는 “무미건조한 측면이 있어서 내 주의를 사로잡지 못함(it had a dry quality to it that never quite captured my attention)”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다(https://www.amazon.com/Disaster-Tourist-Novel-Yun-Ko-eun/product-reviews/1640094164/ref=cm_cr_ar_paging_btm_next_2?ie=UTF8&reviewerType=all_reviews&pageNumber=2).

12) 한국에서는 비주류에 속하는 공포, 공상과학(SF) 장르 소설인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키』가 2022년 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참고문헌

- 곽성희. (2001). 「정보성과 번역전환」. 『번역학연구』 2(1): 77-97.
- 김세정. (2003). 「텍스트의 정보성—문학작품 속 어휘번역」. 『번역학연구』 4(1): 49-69.
- 김혜영. (2012). 「번역 글쓰기에서 정보성에 따른 결속구조 표현 수단으로서 어순 변형 방법 연구-주제화와 초점화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56: 63-88.
- 박옥수. (2015). 「추리소설의 정보 전달을 위한 번역 전략」. 『동아인문학』 30: 197-218.
- 윤미화. (2007).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대중성」. 『영어교육연구』 34: 238-259.
- 양명희·안경화. (2003). 「영한 번역 기사문의 응결 장치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15: 199-223.
- 이은용. (2014). 「결속구조 번역과 정보성에 관한 고찰-일한 번역소설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6(2): 131-155.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Beaugrande, R. and Dressler, W.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Carroll, L. (1960). *The Annotated Alice: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New York: Potter.
- Halliday, M. A. K. and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Kirk, S. H. (2004). Contrastive analysis of cohesive devices in English source, Korean target and comparable Korean text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5(2): 163-184.
- Lee, P. (2014). Reconceptualizing explicitation as informativity control.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5(4): 179-221.
- Seago, K. (2014a). Introduction and overview: crime (fiction) in translation.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2: 2-14.
- Seago, K. (2014b). Red herrings and other misdirection in translation. In Caderra, S. M. and A. P. Pintaric (eds.), *The Voices of Suspense and Their Translation in Thrillers*. Amsterdam: Rodopi, 207-220.
- Venuti, L. (ed.) (2021).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Fourth Edition*. New York: Routledge.
- [인터넷 자료]
- 월간중앙. (2021). 대거상 받고 판매 역주행 ‘밤의 여행자들’의 윤고은 작가.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760\(2022.5.28.검색\)](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760(2022.5.28.검색)).
- 중앙일보. (2021). 윤고은 『밤의 여행자들』 영국 대거상 수상...한국문학번역원 지원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6878\(2022.3.23.검색\)](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6878(2022.3.23.검색)).
- Blackman, H. (2022). The Usonian interviews, No. 12: literary translator Lizzie Buehler on "The Disaster

Tourist". [https://harrisonblackman.substack.com/p/the-usionian-interviews-no-12-literary?utm_source=url&s=r\(2022.04.02.검색\)](https://harrisonblackman.substack.com/p/the-usionian-interviews-no-12-literary?utm_source=url&s=r(2022.04.02.검색)).

Meyer, L. (2020). Fancy a Trip through (Other People's) Misery? Yun Ko-Eun's "The Disaster Tourist" Has You Covered. [https://www.wordswithoutborders.org/book-review/fancy-a-trip-through-other-peoples-misery-yun-ko-euns-the-disaster-tourist\(2022.04.02.검색\)](https://www.wordswithoutborders.org/book-review/fancy-a-trip-through-other-peoples-misery-yun-ko-euns-the-disaster-tourist(2022.04.02.검색)).

[분석 텍스트]

윤고은. (2013). 『밤의 여행자들』. 서울: 민음사. (ST)

Yun, K. (2020). *The Disaster Tourist* (L. Buehler, Trans.). London: Serpent's Tail. (TT)

This paper was received on 13 April; revised on 10 June 2022; and accepted on 20 June 2022.

Authors' email address

shm213@gmail.com

imksy927@hanmail.net

About the authors

Seunghye Mah (first author) is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Dongguk University, Seoul. Her main research area ranges from feminist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to translation education.

Soonyoung Kim (corresponding author) is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Dongguk University, Seoul. She has authored a large number of journal articles on literary translation, audio-visual translation, and machine translation.